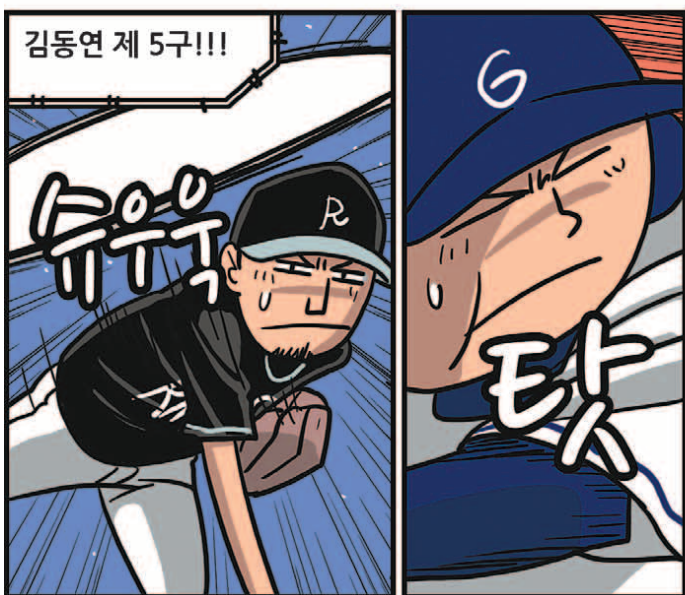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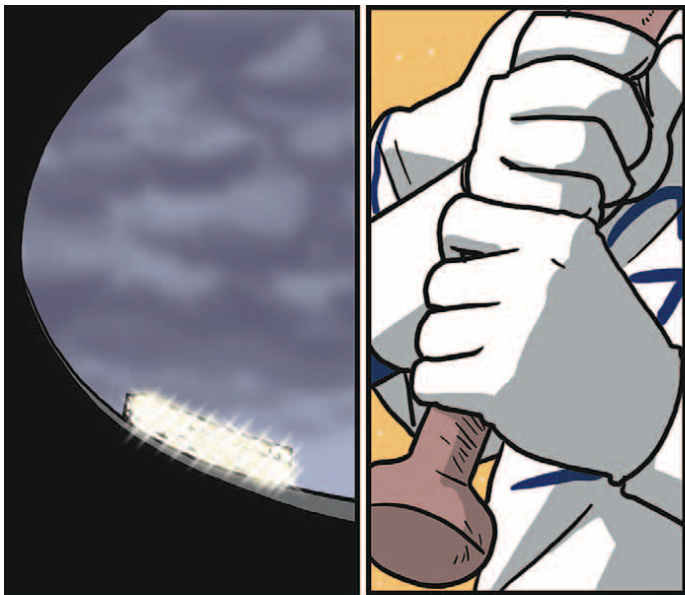


클로저 이상웅

By Choi Hoon <678>



* '클로저 이상웅'은 'sportsdonga.com' 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2월 16일(수요일) 음력: 11월 6일

<p>오늘의 마음: 여우비, 겨우 만족. 운세: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하자. 오늘은 역마의 날이다. 육구분출, 잠재력 발휘의 날이고, 건강과 금전에 대한 변동이 이루어진다. 계획과 판단력이 뛰어나 주변의 시선을 모으고 결과에 대한 과분한 응답으로 몸 둘 바를 모른다. 반대로 잘못되면 금전적 낭비가 따른다.</p> <p>길방: 동</p>	<p>오늘의 마음: 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운 날이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에서 뒤통수 맞는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우위로 빛나게 될 것이다. 오늘은 겁살일이다. 성급한 생각으로 부동산을 속아서서 재산에 날리는 경우 등 실수를 할 수 있는 날이다. 서류상의 실수로 장래 압류 등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날이니 조심하라.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p> <p>길방: 남</p>
<p>오늘의 마음: 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갑언이설에 조심만 한다면 일을 벌이고 뜻을 펼치는 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며 최선을 다하라. 교섭과 거래에 있어서는 강경책보다는 온화책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호랑이가 호랑이를 만났으니 서로 잘났다고 경쟁하는 형상이다. 또 오늘은 비견의 날이다. 비견은 재를 극한다. 재는 처음 아껴주세요 돈이다. 오늘은 부부간의 분쟁, 아버지와의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인간관계보다는 일에 집중하라. 길방: 북</p>	<p>오늘의 마음: 쾌청, 환한 하루. 운세: 기회를 얻어 공업을 이루는 날이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할 운세이다. 그러나 매사 항상 준비하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며 겸손하고 온화하게 생활하여 적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오늘은 망신날이다. 망신이 좋게 작용하면 수익의 중대이다. 망신의 운은 잠깐 동안 누리는 복록이다. 수익이 생겼다면 빨리 손을 떼고 그것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구실이 따르고 하는 일에 마가 켜 수 있다. 그야말로 망신수가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다. 길방: 북</p>
<p>오늘의 마음: 여명, 해 뜨기 직전. 운세: 직장인은 능력을 인정받게 되지만 근처에 동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경계할 필요가 없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고 진실 되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 구직자는 곧 취업이 되겠으니 노력하라. 오늘은 역마의 날이다.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가능한 한 먼 거리가 좋다. 해외업무나 출장 등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는 업무가 좋다. 운이 좋으면 신개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대폭적 승진이나 진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p> <p>길방: 남</p>	<p>오늘의 마음: 신기루, 공상 많다. 운세: 지출을 억제해야겠다. 낭비벽이 생김으로 써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될까 두려워 하고 주변을 살펴서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우면 후일 그 보답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겁살일이다. 욕심이 많은 날이다. 여성의 경우 남자 조심하라.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 행정조직의 오인으로 범죄금 등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운이 좋으면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는 날이다.</p> <p>길방: 동</p>
<p>오늘의 마음: 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웅달샘에서 흐르는 가냘픈 물줄기의 형상이다. 정신적으로는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극단적 마음이나 경계방동을 삼가라. 그러나 업무적으로는 바빠지고 밝은 미래가 보이는 날이다. 오늘은 지살일이다. 공연히 분주한 날이다. 말은 장성이다. 장성이 지살을 만나면 파견근무이다. 근무의 결과가 좋게 된다. 갔다 오면 진급이다.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일거리를 이루기 위한 출사이다. 지살 일에는 움직여야 한다. 움직여라.</p> <p>길방: 중앙</p>	<p>오늘의 마음: 맑음, 평화롭다. 운세: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단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오늘은 망신살에 귀문살이다. 망신일에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로 인해 내외적으로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다. 망신일에는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 등을 돌리며 서로를 욕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 서두르면 낭패 본다. 침착하게 일에 임하라.</p> <p>길방: 남</p>
<p>오늘의 마음: 해, 번개, 갈등. 운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이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어딘가에 허술한 면이 있으니 찾아서 보강하길 바라며, 도움을 청할 일이 있거나 자문을 구할 일이 있다면 여성에게 부탁해 보라. 오늘은 역마의 날이다. 지살과 역마의 만남이다. 움직이는 날이다.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면서 번다. 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날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서두르지 말라.</p> <p>길방: 북</p>	<p>오늘의 마음: 싸움, 소심한 날. 운세: 주변 사람들과의 인화에 지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람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오늘은 겁살일이다. 장성이 겁살을 만났다. 도전적이며 남에게 자기 싫어하는 기운 또는 쿠데타의 기질을 갖게 된다. 반면에 자신이 약하면 타인으로 인해 그러한 기운에 당하기도 한다. 부동산의 압류, 강제매각 등을 당할 수도 있으니 매사 법을 지켜야 한다.</p> <p>길방: 중앙</p>
<p>오늘의 마음: 쾌청, 상쾌. 운세: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오늘은 지살일이다. 화제가 지살을 만난 날이다. 화제는 덮고 가리고 자신의 재능을 숨기려는 기운이며, 지살은 활동적이고 행동하는 기운이다. 그런데 개와 호랑이는 삼합으로 상생 되는 결합이다. 학업, 연구, 문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p> <p>길방: 남</p>	<p>오늘의 마음: 구름, 자유롭고 싶다. 운세: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겠다. 때때 운은 급격히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대는 이루어진다. 오늘은 망신살 일이다.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자칫 망언이나 회풍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일만 커지게 된다. 가혹한 방문하여 영업활동을 하지만 딱히 않는다.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하라. 앞서거나 서두르지 말라.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좋겠다.</p> <p>길방: 서</p>
<p>금일의 로또 구입처 행운방향(주거지 기준): 동, 북, 동북, 중앙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2, 4, 7, 9, (5, 0) 금일복권, 주식, 부동산매입 행운의 띠: 토끼, 양, 돼지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쥐, 용, 원숭이</p>	

도원역리학회 도원학당 원장 *영어상당 가능(02-812-1201~2)

강주현의 퍼즐월드

(큐미디어 게임) play스토어-앱-인기무료-검색창에서 경품날말·난수표·숨은그림찾기·스타와사다리타기·야구스도쿠·오늘의운세(솔광)·그림영어퍼즐(영무세)을 쳐보세요. 게임 즐기고 경품 받는 재미가 끝내줍니다. www.매직스도쿠.kr 02-493-5956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2	6		
6	8			7	5
1		3	5		2
8	9		6	3	5
		5		1	
1	4		2	9	7
8		7		4	3
	3	5			4
		6	8		

8	9			3	2
			8	2	7
7			3		6
	6			8	3
	9	8	2		3
	2		6		8
2			4		7
			7	9	2
9	4			1	3

스도쿠정답

2	9	8	6	9	1	6	4	7
9	8	4	2	1	6	5	8	7
6	8	1	4	7	5	2	8	9
7	9	6	3	2	8	4	9	1
8	7	2	1	6	9	9	7	8
1	5	8	7	9	4	6	2	8
4	2	9	9	8	8	1	6	
8	9	7	6	7	1	8	9	2
1	6	8	9	7	2	8	4	5

8	2	1	8	9	9	7	2	6
8	9	7	2	6	1	9	8	1
2	6	9	1	7	8	9	8	2
4	8	7	6	9	9	1	2	8
1	9	8	2	2	8	8	6	7
6	8	2	7	8	1	2	9	9
9	7	8	9	8	6	2	1	2
9	1	6	2	2	8	8	6	9
2	2	8	9	1	7	6	9	8

유머

구해주지 않고 뭐해!

물었다.
 “당신은 누가 더 대단하다 생각해? 저 곡을 작곡한 쇼팽, 아님 저 곡을 연주하는 조성진?”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다.
 “당신도 한 번 생각해 봐요, 저렇게 난해한 곡을 이해도 못 하면서 듣고 있는 우리가 더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집엔 어떤 일로

지난밤 새벽까지 술을 마신 신입사원이 회사에 출근한 아침부터 책상에 엎드려 코를 킁고 있다. 그 꼴을 지켜보던 부장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그 사원에게 다가가서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아니 여기가 자네집 안방인 줄 아나? 이젠 코까지 킁면서.”
 그러자 신입사원이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다.
 “아니 부장님, 이렇게 밤늦게 우리 집엔 어떤 일이세요?”

누가 더 대단할까

어느 날 TV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를 중계하고 있었다. 곡목은 쇼팽의 '야상곡 op. 48-1'이었다. 한 참 연주곡을 들던 남편이 아내에게